/ 신임 검사장 인터뷰 /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풍토 조성"

안창호 광주고검장

"광주고검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검찰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창호(52) 신임 광주고검장은 12일 "한 나라의 법질서가 흔들린다면 국가의 안정은 물론, 국민의 자유까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을 위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 고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또 "직원 모두가 법질서 확립만이 국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하여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는 불법 집단행동은 물론, 민생침해, 부정부패 사범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고검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인격을 수반한 품격을 갖춘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목적 만을 생각한 채 기존 수사방식만 고집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작은 사건이라도 인간미 넘치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은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대에 걸맞게 창의적이고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선진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행정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검찰에 발을 내디딘 뒤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검 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주민 신뢰받는 바른 검찰상 정립"

길태기 광주지검장

"예향 광주에서 다시 근무하게 돼 영광입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길태기(51) 신임 광주지검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바른 검찰'이 돼야 한다"며 "'바른 검찰'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길 지검장은 "검찰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수록 국민이 요구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검찰 간부가 퇴진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새 총장 취임과 함께 조직을 더욱 안정시켜 최고 사정기관이자 인권보장의 보루인 검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등 사소한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태어났으며, 검찰에 부여된 인권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근거를 잃게 된다"면서 "각종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년6개월 만에 광주에서 다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광주지검 직원들이 항상 출근하고 싶어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길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로 검찰에 입문,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대검 형사과장 ▲법무부 공보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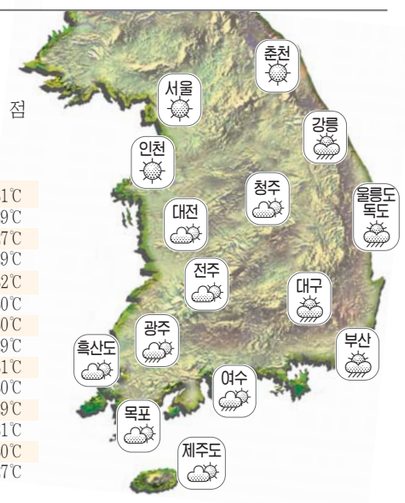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0분 해짐 19시 24분 달뜸 22시 56분 달짐 12시 40분

다시 찾아온 무더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

광 주	비온뒤 갬	24/31℃
목 포	흐린뒤 맑음	23/29℃
여 수	비온뒤 갬	24/27℃
완 도	흐린뒤 맑음	24/29℃
구 례	비온뒤 갬	23/32℃
해 남	흐린뒤 맑음	24/30℃
장 흥	흐린뒤 맑음	24/30℃
고 흥	비온뒤 갬	24/29℃
순 천	흐린뒤 맑음	23/31℃
영 광	흐린뒤 맑음	24/30℃
진 도	흐린뒤 맑음	24/29℃
전 주	흐린뒤 맑음	24/31℃
남 원	흐린뒤 맑음	23/30℃
흑산도	흐린뒤 맑음	22/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서~북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6:22 19:08	11:39 --:--
여수	00:32 13:40	06:59 19: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 씨						
최저/최고	22/33	23/33	23/33	22/33	22/32	23/32

열대야·모기 실종 '이상한 여름'

긴 장마에 저온 영향…모기도 산란 못해 개체수 86%↓

지루할 만큼 긴 장마 때문이었을까? 지난달 20일 이후 광주에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폭염주의보 발령횟수도 크게 줄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 개체수 또한 지난해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폭염 줄고 기온도 떨어져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에서 관측된 열대야는 모두 6일. 지난해 광주에서는 모두 22일, 7월에만 15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도 올해는 열대야 관측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목포에서는 13일 동안 열대야가 관측됐으며, 같은 기간 ▲여수 16일 ▲완도 9일 ▲해남 12일 ▲고흥은 7일 동안 열대야가 관측됐다. 하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 나타난 열대야는 ▲여수 2일 ▲완도 4일 ▲해남 5일 ▲고흥 3일 등이다. 목포에는 올 들어 아직까지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밤 더위'뿐만 아니라 '낮 더위'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역에 5번 이상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도 올해는 발령 횟수가 단 1번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폭염주의보 최초 발령일이 6월 24일로 지난해 최초 발령일인 7월 7일보다 2주가량 빨라졌다.

열대야와 폭염주의보 발령이 줄어든 만큼 7월 광주의 기온도 다소 낮아졌다. 지난달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평년(25.5도, 22.4도)보다 각각 0.7도와 0.6도 낮았으며, 최고기온도 평년(29.7도)보다 0.8도 낮았다.

기상청은 올 여름 열대야가 줄어들고 다소 서늘한 데 대해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활동하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길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야 하는 게 통상의 여름인데 올해는 과거와 달랐다는 것이다.

◇'불청객' 모기는 어디갔나?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수와 영암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에 설치한 유문등(모기를 유인하는 등)의 모기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 채집된 모기는 모두 2천783마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채집된 1만9천717마리에 비해 85.9%(1만6천934마리) 줄어든 것이다.

활동하는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 일본 뇌염모기 발생시기도 지난해보다 늦어졌고, 채집된 모기 수도 감소했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는 5월 3일 영광에서 채집돼 지난해 관찰된 시기(4월 14일·여수)보다 3주가량 늦어졌다.

뇌염모기 개체 수도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7월 4째 주 전남 5개 시·군에서 하루 평균 관찰된 뇌염모기는 2천441마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1마리가 채집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박학재 보건연구사는 "극심한 봄 가뭄과 긴 장마로 인해 모기서식지가 파괴된 게 (개체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입추가 지나고, 태풍이 오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체력단련·고혈압 예방 '일석이조' 12일 광주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교실'에 참가한 노인들이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가 주관한 이 교실은 28일까지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전남 지하수 10% "수질 부적합"

광주·전남지역 지하수 10곳 중 1곳 가량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시·도가 관리하는 2천421개 지하수의 오염현황을 측정한 결과, 5.4%(13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역 지하수는 8.0%(25개 중 2개), 전남지역은 10.0%(110개 중 11개)가 기준을 웃돌아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음용 여부에 따른 초과율은 음용 6.2%, 비음용 4.7%로 음용 초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오염물질별로는 일반세균(66개), 질산성질소(36개), 대장균군수(15개), pH(6개) 등의 순으로 수질기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 민물 어패류 수은 농도 안전"

영산강 등 전국 주요 수계와 민물 어패류의 수은 농도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2일 영산강 등 전국 주요 수계 135곳의 수질과 114곳의 퇴적물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은농도가 6.5ng/ℓ로 미국 환경청의 생태보호수질기준(770ng/ℓ)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산강 수질에 포함된 수은 농도는 5.4ng/ℓ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패류에서 검출된 수은함량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 등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수 등 92개 지점에 서식하는 어패류 57종 3천710개체에 대한 수은농도 분석결과, 어패류의 종별 평균 총 수은 농도는 3.9~163.2㎍/kg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산물 총 수은 규격 기준(500㎍/kg) 이하로 나타타 안전한 것을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예인선 노조 파업 결의

여수·광양항 예인선 노조가 부두 주변에서 숨진 조합원의 보상문제 해결이 지연된데 항의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2일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국항만예선지부 여수지회에 따르면 여수지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해 투표인원수 77명 중 50.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여수·광양항에서 운항 중인 13개 선사 31척의 예인선 가운데 18척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